

경기 동북부권 공공의료원 남양주시 설립촉구 건의안

(박경원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3
----------	-----

제안연월일 : 2023년 6월 16일

제안자 : 박경원, 김현택, 이상기, 김지훈(민), 김지훈(국), 김영실, 조성대 이정애, 박은경, 박윤옥, 이경숙, 한근수, 김동훈, 정현미, 한송연, 이수련, 김상수, 이진환, 원주영, 손정자, 전해연

1. 주문

경기 동북부 주민이 기본적인 공공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고 행복하고 건강한 삶의 가치를 향유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원이 남양주시에 설립될 수 있도록 건의함.

2. 제안이유

- 가. 경기 동북부지역 의료 환경은 공공의료 기관은 물론 민간 의료기관마저 경기도 남부와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현실로 인하여 차별받고 있음.
- 나. 코로나 19 등을 거치며 긴박한 상황과 응급의료 체계의 붕괴속에 안정적인 공공의료 기반의 확보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다. 탄탄한 교통 인프라와 배후인구 포함 130만 거주지역인 남양주시에 대한 공공의료 수요 측면을 고려하여 줄 것을 요청함

3. 건의안 : 덧붙임

4. 이송처 : 경기도, 경기도 의회

경기 동북부권 공공의료원 남양주시 설립 촉구 건의안

대한민국헌법에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게 삶의 가치를 영위할 수 있도록 행복을 추구할 권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현 정부와 경기도는 어떤 지역에 거주하든지 누구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공의료 인프라 강화를 국정과제와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필수 의료여건이 지방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는 수도권에 위치하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동북부지역 의료 환경은 공공의료기관은 물론 민간 의료기관마저 경기도 남부와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현실로 인하여 차별 아닌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국가재난 상황인 코로나19 감염병의 발생과 대응과정을 거치면서 지역내에서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환자를 타 지역으로 이송시켜야 하는 긴박한 상황과 응급의료 체계의 붕괴 속에 수많은 사망자와 막대한 경제적·사회적 손실을 경험해야 했으며, 이로 인하여 그 어느 때보다 안정적인 공공의료 기반의 확보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기 동북부권의 공공의료기관 설립은 “최상의 공공의료 실현”이라는 구호라기 보다는 “최소한의 필수 공공의료 확보”라는 절박함 속에서 요구하고 건의하는 사항으로서 경기 동북부 주민이 기본적인 공공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고 행복하고 건강한 삶의 가치를 향유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간곡히 건의하오니 적극 수렴하기 바랍니다.

첫째, 남양주시 호평동 소재 백봉지구 종합의료시설 용지에 경기도 의료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에 대한 수립과 보건복지부의 적격성 심사,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등 중앙정부와의 협의절차를 조속히 완료할 것을 요청한다.

둘째, 우수한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는 탄탄한 교통 인프라와 지속 가능한 의료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배후인구 포함 130만 거주지역인 남양주시에 대한 공공의료 수요 측면을 적극 고려하여 것을 요청한다.

셋째, 토지매입 비용 및 부지조성비 절감 등 공공의료기관 설립에 필요한 합리적 경제논리에 적합하도록 입지선정의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

넷째, 경기 동북부지역의 의료기관 절대 부족에 대한 현실적인 여건을 적극 검토하여 공공의료원 설립을 1개소로 한정하지 않는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 유치 요구에 대한 의료기반 확보 대책을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

2023년 6월 16일

남양주시의회 의원 일동